한의대 교과목으로서 의학영어에 대한 고찰

이해웅*·김 훈[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 : 의사학교실

About the Lectures on Medical English at Oriental Medical Colleges in Korea

Hai Woong Lee*, Hoon Kim[1]

Department of Public Health, 1 :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A lot of medicine-related schools have courses for Medical English in their curricula these days. Medical English of Oriental Medical Colleges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lleges, especially medical schools, in contents for the lecture. The lectures on Medical English of Oriental Medical Colleges need to include : Oriental medical terminology, Medical terminology, Materials about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Writing about Oriental Medicine in English, Conversation with patients in English, Presentation on Oriental Medicine in English. It would be better that the study of Medical English should be placed in the second year of pre-medical course in Oriental Medical Colleges.

Key words : medical english, curriculum, medical terminology, oriental medicine

서 론

의학영어는 많은 보건의료계열 학과에서 기초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이다. 의예과나 한의예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의무행정학과 등 보건의료계열 전반에 걸쳐서 전공기초과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내용은 각 전공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개 서양의학의 영문 용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학문 체계가 서양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양의학은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의 기초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해 왔고, 이러한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과학기술 전체 분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학은 서양의학과는 역사와 체계가 다르고 주된 언어도 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의예과에서는 의학한문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는 서양의학의 의학영어에 대응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대에서 의학영어라는 과목은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대에서 의학영어 과목은 주로 예과에 개설되어 있으며, 학교에 따라 의학용어 또는 한의학용어 등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대개 그 내용은 양방의학용어와 수련이나 임상에서 사용되는 영어 표현, 한의학이나 의학에 관한 논문 등의 출판물을 보는데 기본이 되는 영어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크게 요약해 보면 양방의학용어와 한의학 영문용어 강의, 임상에서 사용되는 영어 표현 연습, 각종 의학 및 한의학 영문 출판물 강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매우 많은 양이 되며 한정된 강의 시간에 이 내용을 모두 다루는 것은 무리이다. 현재 각 학교 교과과정의 특성과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한의대에 개설되어 있는 의학영어 과목이 한의대 교과과정상 가지는 의미와 내용에 대해 고찰해보고 한의대에서 필요한 의학영어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또한 동의대학교 2006학년도 2학기 의학영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학영어 과목을 배우는 학생입장을 살펴보고,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강의진행을 위해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을 살펴볼 것이다.

본 론

1. 의학영어 교과목 현황

각 학교별 자료는 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교과과정이나 과목소개, 강의계획서, 강의시간표 등을 참조하였다. 전국에 11개의 한의과대학이 있으며 경원대는 의학영어 과목이 개설되

* 교신저자 : 이해웅, 부산시 부산진구 진리1로 100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jameslee@deu.ac.kr, · Tel : 051-850-7427
· 접수 : 2007/10/08 · 채택 : 2008/01/08

어 있지 않았다[1]. 경희대는 2007학년도에 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의학영어1'과 '의학영어2'로 구분하여 1학점 2시간 두 학기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2]. 대구한의대의 경우 2006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영문의학논문강독1'이 본과 1학년을 대상으로 1학점 2시간, '영문의학논문강독2'가 본과 2학년을 대상으로 1학점 2시간 과목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3]. 대전대학교는 2007학년도에 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의학영어1'과 '의학영어2'가 1학점 2시간 두 학기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4]. 동국대는 2006학년도 기준으로 예과 2학년 과정에 '의학영어1'과 '의학영어2' 1학점 2시간 두 학기 과목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5]. 동신대는 2007학년도에 예과 1학년을 대상으로 '의학영어1'과 '의학영어2'로 구분하여 1학점 2시간 두 학기 과목으로 정해져 있다[6]. 동의대는 2007학년도 기준으로 예과 1학년을 대상으로 '의학영어1'과 '의학영어2'가 2학점 2시간 두 학기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7]. 상지대는 2007학년도 1학기에 예과 1학년을 대상으로 '의학용어'가 1학점 2시간으로, 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의학영어Ⅱ-1'이 1학점 2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8]. 세명대는 2007학년도 기준으로 예과 2학년 2학기 과정에 '의학영어'가 2학점 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9]. 우석대는 2006학년도 예과 1학년 2학기에 '의학영어'가 1학점 2시간 과목으로 정해져 있었다[10]. 원광대는 2007학년도 기준으로 예과 1학년에 '한의학용어1'과 '한의학용어2'가 1학점 2시간 두 학기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고, 또한 예과 1학년 두 학기에 '한의학생활영어'가 0학점 2시간 과목으로, 예과 1학년 2학기에 '의학영어'가 2학점 2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11].

일부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볼 수 있었다. 경희대 2007학년도 1학기 의학영어1의 경우, 수업목표는 '의학공부에 필수적인 일반생물, 해부, 생리학등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익히며 생물학논문을 능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함'이었고, 매주 1시간은 용어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며 나머지 1시간은 관련 논문 2~3page 분량을 읽고 제시 문제에 답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주제는 Medical Terminology에 대한 것으로 'Suffixes & Prefixes', 'Cell, Tissues, and Organs', 'Body structure', 'Disease', 'Diagnosis and Treatment', 'Drugs', 'Circulation I·II', 'Blood and Immunity I·II', 'Respiration', 'Digestion I·II'이었다. 세명대학교 2004학년도 2학기 의학영어(Medical English)의 경우 수업목표는 '영문으로 된 한의학 서적 또는 한의학 관련 논문을 읽고 이해하며, 또한 한의학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외국인 환자와의 대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였고, 주교재는 TED J. KAPTCHUK의 □□THE WEB THAT HAS NO WEAVER□□(CONGDON & WEED, NEW YORK, 1983)[12]이었다. 한의학을 영문으로 표현한 논문 번역 과제를 부여하였고, 한의학을 영어로 표현한 특정 부분을 암송하도록 장려하였다.

Table 1. Examples of outline of medical english

대학교	과목명	강의개요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 영어	한의학의 국제화를 위한 도구가 되는 한방의학영어와 양방의학영어를 공부하여 본 대학의 특성화인 한의학의 세계화를 촉진시킨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 영어	의학관련 전문용어를 이해함으로써 의학 정보의 수용을 용이케 하고 영어표현능력을 향상시킨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 영어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지식과 원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용어학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필수적인 의학문헌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초급학년에서 영어로 된 의학상식 및 의학용어의 개념을 교습하여 역량있는 의학도의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한편 가상적 병원상황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훈련을 통하여 향후 국제학회에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영어로 발표하는 데에 밑받침이 되는 소양을 배양한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영어	의학을 배우기 이전에 교양 및 기초전공을 공부하는 의예과 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의학에 관련된 영어를 습득케 하여 의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철저한 준비과정을 부여하는데 이 과목의 목적이 있다.

의과대학의 경우 몇 개의 대학을 살펴보았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의예과 2학년 1학기에 '의학용어학(Medical English)'이 2학점 2시간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1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부과정 교과과정에는 의학영어와 관련된 과목이 없었다[14]. 경희대학교의 경우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완전 전환 결정이후 2007년도 1학기 종합시간표[15]에는 예과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2006년도 교과과정에는 예과 2학년 2학기에 1학점 2시간 과목으로 의학영어가 개설되어 있었다[16].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예과 2학년 1학기에 '의학영어1'이 2학점 2시간, 2학기에 '의학영어2'가 3학점 3시간으로 되어 있다[17].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은 의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2

1) 경원대학교 요람 2007(http://www.kyungwon.ac.kr/haksa/info/haksa_info02.jsp 2007.9.5.)
2) 경희대학교 종합시간표(http://time.kyunghee.ac.kr/200710/regul/121/time/121080601.html 2007.9.5.) ; 교과과정(http://omc.khu.ac.kr/html/university/university04.php 2007.9.5.)
3) 대구한의대 200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안내(http://www.dhu.ac.kr/new_home2/board/read.html?code=school_notice&id=549824&searchstr=&qu=&page=3&category=&list_no=199&viewid=&sep= 2007.9.5.)
4) 대전대학교 교과과정(http://home.dju.ac.kr/medicine/introduce/introduce3.htm 2007.9.5.)
5) 학업이수가이드 2006, 동국대학교 교무처 교무기획팀, 경북 경주시, 2006년 2월
6) 동신대학교 교과과정(http://hak.dsu.ac.kr/dshani/01/sogae05.htm 2007.9.5.)
7) 동의대학교 교과과정(http://www.deu.ac.kr/dessc/05_info/info01.jsp 2007.9.5.)
8) 2007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 상지대학교, p88.
9) 세명대학교 교과과정(http://www.smhani.net/campus/process_01.asp 2007.9.5.)
10) 우석대학교 교과과정(http://wshani.net/o/1-3_cur.html 2007.9.5.)
11) 원광대학교 교과과정(http://come.wonkwang.ac.kr 2007.9.5.)
12) Ted J. Kaptchuk, The Web That Has No Weaver, New York, Congdon & Weed, 1983(김영훈 옮김, 벽안의 의사가 본 동양의학, 서울, 가서원, 1992). 현재 2판이 나와 있다. Ted J. Kaptchuk, The Web That Has No Weaver : Understanding Chinese Medicine, 2nd ed., New York, McGraw-Hill, 2000.
13)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과과정(http://medical.catholic.ac.kr/academics/academics03.asp 2007.9.5.)
1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과과정(http://www.kms.ac.kr/info/education.html 2007.9.5.)
15) http://web.khu.ac.kr/~time/200710/regul/121/time/12107a.html 2007.4.24.
16)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과과정(http://www.powerkumc.net/menu03/sub04.html 2007.9.5.)
17)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과과정(http://www.mdware.co.kr/kmumedi/

학기에 '의학영어'가 2학점 2시간으로 개설되어 있다[18].

계명대의 경우 강의계획서[19]를 보면 의학용어 학습, 인체 각 기관에 대한 질환 및 치료, 의학분야 영어회화, 의학 관련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여러 교수들이 담당분야에 따라 돌아가면서 가르친다는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듯하다.

2. 의학영어 과목의 내용

의대에서 의학영어의 과목은 전공기초과목으로서 향후 전공을 공부하는데 준비과정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접어들어 외국인 환자를 보는데 필요한 영어회화, 국제학술지를 읽거나 자신의 연구결과를 영어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도 생각되고 있다. 의학영어라는 과목을 통해 예과에서 의학의 기초내용과 주요 단어나 표현 등을 익히면 나중의 교과목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미 한의대에서도 의학영어는 필수 과목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한의대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적절히 조절하여 한의대 교과과정의 한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각 한의과대학에서 추구하는 의학영어 강의개요를 살펴보면 크게 한방 의학영어, 양방 의학영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한·양방 의학영어를 공부하여 의학 관련 정보·지식을 습득하고 한의학도로서 소양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강의내용을 참조하여 의학영어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한의학 원전과 관계된 영문 한의학용어 학습
· 양방 의학용어 학습
· 한의학분야에서 영어로 된 출판물 강독(논문, 서적, 신문, 잡지 등)
· 의학 분야에서 영어로 된 출판물 강독
·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 임상에서 외국인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영어회화
· 한의학 관련 내용을 영어로 발표하기 위한 영어회화

발생학, 조직학, 양방생리학, 양방병리학 등 서양의학 과목이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과목의 기초로 양방 의학용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보건의료체계의 한 직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계열의 공통 소통 언어로서 양방 의학용어를 학습하는 것이 한의사가 되기 위한 기초 중의 하나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한의학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뿐 아니라 미국, 호주, 유럽 각국에도 침과 한약을 중심으로 한 여러 대학 및 기관이 세워져 있으며 각종 연구소에서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여러 나라에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그 기본 진행 언어로 영어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권위 있는 학술지의 기본 언어로도 영어가 많은 부분 자리 잡고 있어 한의학 연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영어가 주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S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인가의 여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학술계에서 논문평가의 방법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어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능력은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기존에 중국어로 이루어진 중의학의 많은 서적들이 영어로 출판되었고, 사실상 이들 서적을 중심으로 중의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20].

3. 의학영어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1학년의 2006년도 2학기 의학영어 시간에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상에서 쓰이는 영어회화 부분은 강의 시간 관계상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 한의학 영문용어
· 양방 의학용어
· 한의학분야에서 영어로 작성되거나 출판된 논문
· 영어로 출판된 한의학 서적 중 일부분 발췌
· 영어로 출판된 의학 서적(의학 교과서 일부 내용 발췌)
· 영어로 된 신문, 잡지에 나오는 의학, 한의학과 관련된 기사
· 의학용어 교재에서 시디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기
· 조별로 나누어 논문, 기사 등을 요약하고 파워포인트로 발표하기
· 세계 속의 한의학 모습에 대한 미디어 내용 소개
· 비디오 시청(한의학의 세계화 현황)

먼저 이번 의학영어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배울 것으로 예상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복수로 선택하게 하였다. 27.7%로 '양방 의학용어'가 첫 번째였고, 이어서 '한의학 영문용어'가 19.5%로 두 번째, '환자 진료 시에 쓰이는 영어회화'와 '병원 수련 시에 도움이 될 의학영어'가 각각 16.3%로 세 번째였으며, '영어로 된 신문, 잡지에 나오는 의학, 한의학과 관련된 기사'가 8.1%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학생들은 의학영어 시간에 양방 의학용어와 한의학 영문용어를 배울 것으로 제일 많이 예상하였으며, 다음으로 진료에 쓰이는 영어회화 및 수련에 도움 되는 의학영어를 선택하였다. 최근 들어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국내에도 외국인 환자들이 들어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를 감안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질문은 이번 학기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만족하였던 강의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 2개를 고르도록 하였다. '세계 속의 한의학의 모습'에 대한 것이 26.9%로 첫 번째였으며, 양방 의학용어가 25.6%로 두 번째, '영어로 된 신문, 잡지, 인터넷에 나오는 의학, 한의학과 관련된 기사'와 '비디오 시청'이 각각 12.2%로 세 번째였고, '한의학 영문용어'와 '한의학분야에서 영어로 작

curri/int4-6.htm 2007.9.5.)

18)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과과정 http://dept.eu.ac.kr/premed/curriculum/curriculum_process.asp 2007.9.5.)

19)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영어1 2007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http://kmuweb.kmu.ac.kr/kmtis/udpak_wed00005.qry1?in_emp_no=10776 2007.4.24.-9월 5일 현재 웹에서 삭제됨)

20) 2007년 2학기 동의대 의학영어2에서는 Xu Xiangcai의 『Principl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 Essential Guide to Understanding the Human Body』(Boston, YMAA Publication Center, 2001)를 시범 채택하였다.

성되거나 출판된 논문'이 각각 7.3%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세계 속의 한의학의 모습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아 한의학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의 세계 진출과 또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한의사의 국내 진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강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있는 대로 고르게 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았다. '한의학 영문용어'가 29.0%로 첫 번째, '세계 속의 한의학의 모습'이 15.0%로 두 번째, '영어로 출판된 한의학 서적'이 14.0%로 세 번째, '영어로 된 신문, 잡지, 인터넷에 나오는 의학, 한의학과 관련된 기사'가 12.2%로 네 번째, '비디오 시청'이 9.4%로 다섯 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대의 의학영어 과목이라는 특성상 한의학 영문용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강의 시간상 한의학 영문용어에는 시간을 적게 할애하였는데 이를 반영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세계 속의 한의학의 모습과 영어로 출판된 한의학 서적을 고른 것은 이제 세계화 시대에 접어든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의 내용 중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있는 대로 고르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22.9%로 '조별로 나누어 논문, 기사 등을 요약하고 파워포인트로 발표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영어로 출판된 의학 서적'과 '의학용어에서 시디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기'가 각각 15.7%를 차지하였으며, 세 번째는 14.3%로 '한의학분야에서 영어로 작성되거나 출판된 논문'이었고, 다음으로 '영어로 출판된 한의학 서적' '영어로 된 신문, 잡지, 인터넷에 나오는 의학, 한의학과 관련된 기사'가 각각 10.0%를 나타내었다. 학생들의 발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어로 된 자료를 주고 번역 후 요약하여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발표를 하게 하였다. 실제 발표 때에 각 조에서 한 명이 나와 발표를 했는데 파워포인트 구성이 너무 훌륭하고 발표도 잘하여 요즘 학생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고 발표도 잘 한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랐다. 그런데 정작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를 뺐으면 한다고 나타난 것은 좀 의외인데, 영문자료의 내용이 흥미유발을 하기에 조금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한다. 또한 조별로 나누어 공동작업을 하고 발표까지 하게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새내기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도 생각된다.

예과 1학년으로서 의학영어 강의가 공부하기에 적당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3.0%의 학생이 '할 만 했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24.1%의 학생이 '조금 어려웠다'고 하였고, '매우 어려웠다'는 9.3%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수업 진행시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한의학, 의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여 진도를 이끄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따라서 가급적 쉽지만 풍부한 내용을 가진 교재와 자료를 선택하여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물론 의도대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적당하다고 답변을 하여 난이도를 잘 맞추었다고 생각되는데, 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한의학 영문용어와 양방 의학용어

음양, 오행, 장부, 경락, 육기 등을 바탕으로 한 생리, 병리 등 한의학 기초이론의 경우 주요 단어의 영문 표현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임상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많은 표현이 서양의학 용어의 결합이나 응용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질환, 해부학, 생리, 병리의 많은 부분이 양방 의학용어를 바탕으로 나타난다[21]. 한의학 영문용어의 학습을 위해서는 양방 의학용어를 먼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한의학 용어와 영문용어를 일대일로 바꾸는 것 보다 한의학의 내용을 어떻게 영문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의학의 경우 서양에서는 주류학문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학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라고 하더라도 건강, 보건, 의학 등의 분야의 전문가로서 식견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서양의학에 입각한 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 소양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영유아 보육 제외),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94년에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하였다[22].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정책팀, 의료자원팀, 식품정책팀, 의약품정책팀, 공공의료팀, 혈액장기팀이 있고, 보건정책관에 보건정책팀, 질병관리팀, 암관리팀, 정신보건팀, 구강보건팀, 공중위생팀이 있다. 한방정책관에 한방정책팀, 한방산업팀이 있어 보건복지부 전체에서 한의학 관련 조직의 규모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핵심정책의 하나인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 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의 조성으로 4개 중점분야를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보건의료 조직과 민간부문의 보건의료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추진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배경은 주로 서양에서 들어온 의료체계와 보건정책 및 사회복지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과학적 연구방법, 이론에 입각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의 영역은 거의 서양의학을 말한다. 최근에는 한의학의 장점을 살린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건의료정책상 한의학의 자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의학이 보건정책상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또한 양방 의학용어를 익혀 보건의료 정책상 여러 분야에 관심을 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된다.

앞으로 자유 무역을 바탕으로 한 의료 서비스 무한 경쟁시대가 다가옴에 따라서 보건의료의 전문분야로서 자리 잡으려 한다면 서양의학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할 것이다. 양방의학용어

21) Ted J. Kaptchuk, The Web That Has No Weaver : Understanding Chinese Medicine, 2nd ed., McGraw-Hill, New York, 2000 ; Xu Xiangcai, Principl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 Essential Guide to Understanding the Human Body, YMAA Publication Center, Boston, 2001

22)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를 기본으로 학습하여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의학이론이나 임상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능력을 가진다면 그 효용성은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영어로 출판된 한의학 이론이나 임상에 대한 내용을 접하여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의학 분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까지 키운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의학영어 교과목은 어느 정도 의학에 대해 이해할 준비가 갖추어진 예과 2학년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과 1학년생의 경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때는 한의학개론과 기초과학과목 등 각종 교양·전공기초과목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의학영어 과목이 적합하지 않은 때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과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전공과목을 학습해야 하는 시기가 된다. 만약 본과 때 의학영어 과목을 넣는다면 각종 논문이나 서적 등을 강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공과목의 기초가 되는 한의학 영문용어나 의학용어 등을 넣기에는 늦은 시기라고 본다.

결 론

의학영어 교과목은 한의대라는 특성에 맞추어 교육과정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기초이론을 포괄해야 하며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한의사를 육성하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제기관인 WHO는 보건의료정책의 중심기관이며 모든 나라의 보건환경이 나아지도록 힘쓰고 있고 각종 통계 및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 여러 학문이 서로 결합되어 인류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WHO에서 각 나라의 전통의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한의학의 입장에서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연구 및 교류를 하고 있다.

한의사의 역할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의사와 비슷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보호증진 하는데 의료체계상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가를 살펴보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의대에서 의학영어 과목은 우선 양방 의학용어를 중심으로 하여 서양의학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방 의학용어는 한의학 영문 용어 학습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을 가져야 한의학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양방 의학용어가 기초가 되어 한의학 영문용어를 익히고 최신 한의학 연구결과를 바로 영문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한의대 교과과정상 이후 이어지는 해부학, 양방생리학, 양방병리학, 예방의학 등의 양방과목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다면 향후 한의사로서 다양한 직종에 진출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한의사 시장개방과 관계없이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내 학술지도 영문으로 발간하기도 하고 국내 의서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한의사들도 늘고 있다. 따라서 학부에서 먼저 한의학 영문용어 학습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 학술지 논문이나 서적을 읽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의학한문과 의학영어까지 익혀야 하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의학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학습의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현재 한의학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토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며, 이에 대한 기초 지식으로 의학영어의 학습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디오시청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자료로 세계 속의 한의학,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설문 결과도 학생들이 세계 속의 한의학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 높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의예과 의학영어 시간을 활용하여 의료윤리를 강의한 사례[23]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의예과 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강의, 원어민 영어수업, 영어 보고서, 영어발표회 및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하였는데, 영어 의료윤리 강의는 각종 질환 소개와 최신 발전에 대한 소개, 이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까지 하여 의학개론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영어, 의학영어, 의료윤리, 의학개론의 내용을 동시에 교육하여 향후 배울 전공과목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한의대에서도 참조하여 교육내용에 반영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Ted J. Kaptchuk. The Web That Has No Weaver. New York, Congdon & Weed, 1983. 김영훈 옮김. 벽안의 의사가 본 동양의학. 서울, 가서원, 1992.
2. Ted J. Kaptchuk, The Web That Has No Weaver : Understanding Chinese Medicine, 2nd ed., New York, McGraw-Hill, 2000.
3. Xu Xiangcai, Principl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 Essential Guide to Understanding the Human Body, Boston, YMAA Publication Center, 2001.
4. 이정구, 박근환. 의예과 의학영어시간을 활용한 의료윤리교육의 효용성.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8(1):73-83, 2005.
5. 학업이수가이드 2006. 동국대학교 교무처 교무기획팀. 경북 경주시, 2006년 2월.
6. 2007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 상지대학교.
7. 인터넷 사이트(2007년 9월 5일 기준으로 확인)
   경원대학교 요람 2007(http://www.kyungwon.ac.kr/haksa/info/haksa_info02.jsp)
   경희대학교 2007년도 1학기 종합시간표-한의예과

23) 이정구, 박근환, 의예과 의학영어시간을 활용한 의료윤리교육의 효용성,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8권1호(통권 제13호), 2005년 6월, pp.73-83.

(kyunghee.ac.kr/200710/regul/121/time/121080601.html)
경희대학교 2007-1 의학영어 강의계획서(http://time.kyunghee.ac.kr/200710/regul/121/plan/A2585801015728.html)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과과정(http://omc.khu.ac.kr/01/05.php)
대구한의대학교 200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안내(http://www.dhu.ac.kr/new_home2/board/read.html?code=school_notice&id=549824&searchstr=&qu=&page=3&category=&list_no=199&viewid=&sep=)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과과정(http://home.dju.ac.kr/medicine/introduce/introduce3.htm)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과과정(http://hak.dsu.ac.kr/dshani/01/sogae05.htm)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과과정(http://www.deu.ac.kr/dessc/05_info/info01.jsp)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과과정(http://www.smhani.net/campus/process_01.asp)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과과정(http://wshani.net/o/1-3_cur.html)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과과정(http://come.wonkwang.ac.kr)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과과정(http://medical.catholic.ac.kr/academics/academics03.asp)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과과정(http://www.kms.ac.kr/info/education.html)
경희대학교 2007년도 1학기 종합시간표-의학과(http://web.khu.ac.kr/~time/200710/regul/121/time/12107a.html)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과과정(http://www.powerkumc.net/menu03/sub04.html)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과과정(http://www.mdware.co.kr/kmumedi/curri/int4-6.htm)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영어1 2007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http://kmuweb.kmu.ac.kr/kmtis/udpak_wed00005.qry1?in_emp_no=10776, 4월 24일 기준, 9월 5일 현재는 삭제됨)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과과정(http://dept.eu.ac.kr/premed/curriculum/curriculum_process.asp)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